

우크라이나복음주의신학교

새해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비오며 더욱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신학교를 건축하고 네 번째 맞는 겨울인데 금년 겨울 캠퍼스가 유독 아름다워 보입니다. 주변도 아름답지만 신학교의 정원 사과나무 마다 핀 눈꽃이 눈부시고 눈으로 뒤덮힌 건물과 정원이 선교관과 어울려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신축 선교관은 이미 겨울 테스트에 합격한 셈입니다. 집 전체의 내부가 너무 따뜻하고 별 하자가 없어 집은 잘 지은 것 같아 감사할 뿐입니다. 몇 가지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2012년 결산 - 2012년 한 해도 큰 축복의 해였습니다. 2012년에 캠퍼스를 정비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 왔는데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시설이나 건축하는 일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선교관을 완공하게 해 주셔서 책임자급 2가정이 상주하게 되었고 게스트룸이 생겨 강사님들이 묵을 수 있게 되어 기숙사는 학생들만 60명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년 된 집도 깨끗이 수리가 되어 사택으로 사용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졸업생이 40명이 나왔고 재학생이 59명에 사모학교 학생이 32명이나 등록하여 학생들로 가득차고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재정도 12월에는 6천불까지 적자로 나가다가 12월말에 현금 입금을 모두 정리하고 결산해 보니 적자가 모두 채워지고 267\$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셔서 캠퍼스 정비를 마치게 해 주셔서 주님이 신학교의 주인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였습니다. 수입총액이 \$205,165.50에 지출총액이 \$204,898.30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학기 수업 - 1월은 새해와 성탄절이 들어 있어서 휴일이 많은데다가 폭설과 길이 얼어 이동이 쉽지 않은 달 입니다. 외국 뉴스를 보면 100여명이 이 나라에서 동사했다고 합니다만 시골에서는 땀 나무가 없는 집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학교 수업을 하지 않고 가정학습으로 대체하고 요한복음에서 빌레몬서까지 필사해 오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말씀을 직접 쓰면서 큰 은혜를 받으리라 기대합니다. 2월 18일 2학기가 시작되어 큰 공책 2권에다 정성스럽게 써 온 성경쓰기 숙제를 제출한 것을 보고 예배시간에 칭찬해 주고 격려했습니다.

아직도 불경기가 계속되고 특히 시골은 현금을 만지기가 어려운데 이번에도 19명의 학생들이 폭설과 추위로 감기와 기침, 가정일로, 또 기차표를 살 돈이 없어서 결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운 살림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하나 하나가 귀하기도하고 또 안스러워 식사라도 좀 더 잘 해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개강예배는 시121편으로 어떤 어려운 경우가 오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자"고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후임 학장 문제 - 2월 5일 학장실에서 모인 운영위원회에서 후임학장 후보자를 선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을 뽑게 해 달라"고 합심 기도한 후에 투표하여 현 교무처장인 권영봉 목사님이 학장 후보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3월 5일에 LA에서 모이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으면 확정이 됩니다. 저는 이 일로 LA로 가서 이사회에 참석한 후에 볼티모어, 워싱턴 디씨, 뉴헤븐, 뉴욕, 토론토로 가서 신학교의 재정적인 지원을 부탁하고 4월 15일에 우크라이나로 돌아옵니다. 확정이 되면 이취임 예배 준비와 재산, 재정, 여러가지 사무적인 것들을 인수인계하고 7월에 우크라이나를 떠나 서울로 돌아 갈 계획입니다. 이 모든 일정과 과정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에는 자세한 결과를 다시 알려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자 방문 - 제 막내 처제 부부가 멕시코 유카탄에서 한인2-3세를 위한 학교사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현지인들을 위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신학교를 처음 시작하는데 많은 자문과 정보가 필요하지만 직접 가 볼 수는 없고 가끔 전화로 말해 주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사회 참석 후 뉴욕가는 길에 뉴욕에서 잠시 가서 현장을 보고 운영에 필요한 실제적인 것들을 도와주고 돌아 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은퇴한 후에 주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실는지 아직은 모르지만 25년의 선교 경험들을 나누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막연히 생각만 했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재정만 허락된다면 선교지를 순회 하면서 선교지에서의 교회개척과 신학교 사역에 대한 경험과 실제적인 것들을 나누며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은퇴후 주님께서 기뻐하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부부 학생 경우 - 아주 시골에 있는 한 부부 학생이 힘들어 한다는 소식을 듣고 교무처장과 학생처장(부부)이 며칠 전에 폭설이 내리는데도 쫓차를 몰고 2시간 정도 좋은 길로 가서 다시 1시간 이상을 숲속 눈 길을 헤치고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온

일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하루에 한번 들어오는 버스 종점에서 2시간을 무릎까지 오는 눈길을 헤치고 걸어가야 집에 도달 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쫓차로 가는데도 눈이 쌓여서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어렵게 현장에 도착해 보니 남편 사사와 아내 빅토리아 부부는 남의 도움이 전혀 없이 마약 알콜 중독자를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며 치유하는 재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웃집도 없는 동네가 형성되지 않은 벌판에 집을 마련하여 남자1 여자3명을 보살피고 있더라고요. 양과 염소 몇 마리를 키우며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역시 땀 나무를 구할 수가 없어 장작 몇 개비가 남아있는 상태에 현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장작을 살 돈과 몇 가지 옷을 전달하고 기도해 주고 돌아왔는데 이것이 이곳 시골의 모습입니다. 나무마저 떨어지면 동사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지난 18일 2학기가 시작하는 날 이 부부는 밝은 얼굴로 출석하여 먼저 고맙다고 사무실로 찾아 와서 인사부터 하고 강의실에 들어 갔는데 남편 사사는 전보다 얼굴이 반쪽이 된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학생들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공부를 계속하여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지원에 감사합니다

남 성 호 이 미숙 선교사 드림 <nahm530@gmail.com>

우크라이나에서